

텍스트 차원에서의 복수표현의 영한번역전략

곽은주 · 진실로
(세종대)

1. 서론

명사의 가산성(countability)과 복수성(plurality)은 복잡한 이론적 논쟁이 필요 없는 단순한 문제로 생각되기 쉽다. 실제세계에서 셀 수 있는 대상은 가산명사로 어휘화되고 셀 수 없는 대상은 불가산 혹은 물질명사로 어휘화되며, 가산명사만이 하나 이상의 대상을 지시할 때 복수화된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복수명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실제세계에서의 가산성과 문법적으로 어휘화된 가산성간의 불일치가 없어야 한다. 둘째, 가산명사만이 복수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세계에서 셀 수 있는 대상만이 복수화되어야 한다. 셋째, 언어에 관계없이 실제세계는 동일하게 존재하며 가산성과 복수성이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언어 간의 상이성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들이 모두 타당성을 가진다면 명사의 가산성과 복수성은 실제세계의 가산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른 언어 간의 번역에서 복수표현은 항상 복수로 번역될 때 등가(equivalence)를 이

루게 된다.

다양한 언어 자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볼 때, 가산성과 복수성의 일원화를 유지하기 위한 위의 전제들은 몇 가지 점에서 타당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가산성의 여부가 언어에 따라 달리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의 가산성이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는 것만은 아니다. 언어에 따라 복수표현이 전혀 쓰이지 않거나 복수표현이 대상의 복수성이 아닌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복수성에 대한 언어 간의 다양성은 단수/복수표현의 번역에 있어서 문법적인 등가표현이 존재하느냐 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법적인 등가표현이 과연 등가번역이 되느냐라는 별개의 문제를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간의 단수/복수표현의 등가번역(equivalent translation)을 위해 한국어의 복수표현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번역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상에서 등가번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번역전략을 제시하도록 한다.

2. 단수/복수표현의 의미적 차이

2.1 자연적 가산성과 문법적 가산성의 이원화

일반적으로 실제세계에서 셀 수 있는 대상은 가산명사로 어휘화되며, 필요에 따라 복수표지를 수반하여 복수명사로 쓰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실제세계에서 셀 수 없는 대상은 불가산명사로 어휘화되며, 복수화되는 대신에 양을 전달하기 위해 단위명사를 수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1) a. $\sqrt{\text{three chairs}}/*\text{three pieces of chair}$
 b. $*\text{three muds}/\sqrt{\text{three kilos of mud}}$

실제세계에서 의자는 셀 수 있으므로 복수의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복수표현인 ‘chairs’가 (1a)에서처럼 사용되며, 단위명사를 통한 복수표현은 사용되지 않는

다. 이에 반해 실제세계에서 셀 수 없는 진흙은 (1b)에서처럼 ‘muds’와 같은 복수명사는 허용되지 않고 단위명사의 복수화를 통한 복수표현이 가능하다. 한국어의 ‘의자’와 ‘진흙’도 영어의 ‘chair’와 ‘mud’와 동일한 가산성과 복수성을 가지며, 이러한 일치는 문법적인 가산성과 복수성이 실제세계의 가산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법적인 가산성이 실제세계의 가산성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키얼키어(Chierchia 1998a,b)는 실제세계에서 인지적으로 동일한 가산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가산성은 상이할 수 있음을 ‘rice’와 ‘lentil’의 차이를 통해 보여준다. 쌀과 콩은 동일하게 셀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lentil’과 달리 ‘rice’는 물질명사로 어휘화되어 복수표현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 (2) a. *rices/√lentils
- b. change/coins, carpeting/carpets, hair/hairs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시하는 표현은 (2b)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불가산명사와 가산명사로 이원화되어 언어 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 문법적인 가산성이 실제세계의 가산성에만 기초하고 있다면 (2b)에서와 같은 이원적인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어야 한다. 실제세계와 문법에서의 가산성의 불일치는 한 언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 간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충고의 의미를 가지는 ‘advice’가 영어에서는 불가산명사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히브루어의 ‘etza’는 가산명사이다. 언어 간의 가산성의 불일치는 복수의미 전달을 위해서 모든 명사가 단위명사를 수반하는 중국어와 같은 언어에서 극대화된다. 복수표지가 명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위명사의 복수화를 통해서만 복수의미를 전달하는 중국어의 경우 실제세계의 가산성과 관계없이 모든 명사가 불가산명사로 여겨진다.¹⁾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산성의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키얼키어

1) 학자들에 따라 중국어의 단위명사를 가산단위명사와 물질단위명사로 구분하여 어떤 범주의 단위명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중국어의 명사를 가산/불가산명사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Cheng & Sybesma 1999, Chien, Lust, & Chiang 2003)

(1998a,b)와 로슈타인(Rothstein 2010)은 가산성의 토대가 되는 ‘원자성(atomicity)’의 개념을 ‘자연적 원자성(natural atomicity)’과 ‘의미적 원자성(semantic atomicity)’으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즉 실제세계에서 셀 수 있어서 자연적으로 원자성을 가지는 개체가 반드시 문법적으로 원자성을 가지며 가산명사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화는 언어의 자의성(arbitrariness)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언어 간의 상이한 복수표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2.2 영어와 한국어의 복수형태소의 의미적 차이

문법적인 가산성이 실제세계의 가산성과 무관하게 언어 내에서 혹은 언어 간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등가번역을 위해 복수표현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의 경우 어휘의 문법적인 가산성이 실제세계의 가산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결정된 이후 복수의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복수표현이 사용된다. 또한 복수표현은 복수의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영어에서 단수/복수표현이 지시대상의 복수성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어에서는 복수의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반드시 복수표현이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복수표현이 반드시 복수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영어의 경우 단수개체인 학생과 복수개체인 학생은 명사구에 나타나는 복수형태소 ‘-s’의 유무로 명시적으로 구분이 된다.

- (3) a. a student - 학생
b. students - 학생/학생들

2) 영어에서 복수표현이 구체적인 복수의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i)와 같은 총칭문장(generic sentence)에 쓰이는 무관사 복수명사이다.

(i) Beavers build dams.

(i)에서 ‘beavers’는 구체적인 복수개체가 아니라 비버 전체를 지시하는 총칭명사로서 일반적인 복수표현의 의미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복수형태소 ‘-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복수개체의 학생을 가리키는 반면 단수표현인 ‘학생’은 단수개체와 복수개체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어에서 복수개체가 반드시 복수형태소를 수반하지는 않는 것과 별개로 복수형태소가 반드시 복수개체를 지시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실제 세계에서 셀 수 없는 물질인 물은 영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불가산 물질명사로 어휘화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의 ‘water’가 종류를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물을 가리키거나 관계없이 항상 불가산명사로 쓰이는 것에 비해 한국어의 ‘물’은 경우에 따라 복수형태소 ‘-들’이 수반될 수 있다.

- (4) a. Various kinds of water were mixed.
- b. 여러 가지 물(들)이 섞였다.
- (5) a. Water was poured here and there.
- b. 여기저기서 물(들)이 쏟아졌다.

종류의 의미를 가지는 (4)에서 복수의 종류를 지시하기 위해 영어의 ‘water’는 불가산명사로서 단위명사인 ‘kind’를 복수화하는데 비해 한국어는 ‘물들’과 같이 물질명사에 복수형태소를 붙임으로서 복수의 종류를 지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5)에서도 여러 곳에서 쏟아지는 물을 지시하기 위해 ‘water’는 단수표현이 사용되는 반면 한국어의 ‘물’은 복수형태소를 수반할 수 있다. (4b)와 (5b)에서 ‘-들’이 물질명사에 쓰였으며 또한 생략 가능하다는 사실은 ‘-들’의 의미적 기능이 영어의 복수형태소 ‘-s’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복수개체를 지시하기 위한 기능 이외의 추가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려준다.

2.3 배분사로서의 ‘-들’

한국어 복수형태소 ‘-들’은 복수의미 외에도 배분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Kwak 2009a) 일반적으로 가산명사로 생각되는 ‘학생’과 ‘사과’ 뿐만 아니라 불가산명사인 ‘가구’와 ‘물’도 (6)에서 보는 것처럼 복수형태소를 수반할 수 있다.

- (6) a.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보인다.
- b. 여기저기서 사과들을 샀다.
- c. 여기저기서 가구들을 수집했다.
- d. 여기저기서 물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들 문장에서 배분적인 의미의 근거가 되는 ‘여기저기서’를 생략하였을 때 (6a)의 문법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나머지 문장들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는 대명사 사용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7) a.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보이는데 그가 축구를 한다.
- b. 여기저기서 사과들을 사서 그것을 다 먹었다.
- c. 여기저기서 가구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거실에 두었다.
- d. 여기저기서 물들이 쏟아져서 그것이 카펫을 망쳤다.

(7a)에서 단수대명사인 ‘그’가 복수표현인 ‘학생들’을 지시할 수 없어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보이는 학생들이 다 축구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대명사 ‘그들’이 쓰여야 한다. 반면 (7b)의 ‘사과들’은 단수대명사인 ‘그것’과 공지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7c)와 (7d)의 ‘가구들’과 ‘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대명사로 지시될 수 있다.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는 결국 (7a)의 ‘학생들’에서만 ‘-들’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나머지 명사들에서는 복수의 의미보다는 배분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복수형태소로서의 ‘-들’은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에만 활발하게 쓰이며 나머지 명사들의 경우 배분적인 의미기능을 위해 사용된다.

사람과 기타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간의 차이점은 수량표현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에는 수량표현이 자유롭게 쓰이지만 다른 명사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Park 2008)

- (8) a. √세 학생들/√학생들 세 명/√학생 세 명
- b. *세 사과들/*사과들 세 개/√사과 세 개
- c. *세 가구들/*가구들 세 점/√가구 세 점
- d. *세 물들/*물들 세 통/√물 세 통

복수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단위명사가 쓰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산명사를 정의하는 하나의 특성으로 여겨진다. 한국어는 명사의 가산성 여부와 상관없이 단위명사가 두루 쓰이는 경향이 있지만, (8a)의 ‘학생’이 단위명사 없이 수량표현 ‘세’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명사는 (8b)~(8d)에서 보듯이 수량표현을 위해 반드시 단위명사를 동반해야 한다. 또한 단위명사를 동반한 경우에도 ‘학생’을 제외한 명사에 대해서는 ‘-들’이 함께 쓰일 수 없다. 이는 사람 이외의 명사에 쓰인 ‘-들’이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며, 동시에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만 가산명사라고 할 수 있다.

총칭문장(generic sentence)에서도 ‘-들’은 사람과 기타 명사에 대해 구분되어 사용된다. (Nemoto 2005, Kwak 2009b)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의 경우 ‘-들’이 자유롭게 쓰이지만, 기타 명사에 대해서는 쓰일 수가 없다.³⁾

- (9) a. 학생/학생들은 시험을 싫어한다.
- b. 사과는/*사과들은 건강에 좋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을 싫어한다는 총칭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학생’과 ‘학생들’이 다 쓰일 수 있는 반면 사과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들’이 함께 쓰일 수가 없다. 만약 ‘사과’가 ‘학생’과 마찬가지로 가산명사라고 한다면 총칭문장에서 ‘사과’에만 ‘-들’의 사용이 제한되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과’가 불가산명사라고 한다면 (9)에서의 차이점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일반적인 차이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콜벳(Corbett 2000)에 의하면 단수/복수 구분은 생명성의 계층구조(animacy hierarchy)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3) 코헨(Cohen 2001)은 영어의 총칭문장의 의미를 총칭개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총칭(characterizing generic) 문장과 규범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규범총칭(normative generic) 문장으로 구분하였다. 특성총칭문장에서는 총칭명사로 무관사복수명사가 쓰이는 반면 규범총칭문장에서는 단수표현이 사용된다. 곽은주(Kwak 2009b)에서 한국어의 총칭문장에서도 복수성과 총칭의미의 관계가 영어와 유사함이 논의되었다.

(10) 생명성 계층구조 (animacy hierarchy)

화자 > 청자 > 3인칭 > 친족 > 사람 > 생물 > 비생물

사람은 생물보다 생명성의 정도가 높으며, 생물은 또한 비생물보다 생명성의 정도가 높다.⁴⁾ 단수/복수의 구분이 되는 가산명사는 이 계층구조의 상위에서부터 결정되며 하위의 어느 영역에서부터는 불가산명사로 정해진다. (6)에서 (9)까지의 자료를 보건대 한국어에서는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는 명확히 가산명사이지만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는 불가산명사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에 쓰이는 ‘-들’만 복수형태소로 인식되며, 나머지 명사에 쓰이는 ‘-들’은 배분사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⁵⁾

2.4 복수개체를 포함한 해석영역

영어의 복수형태소가 복수개체를 지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한국어의 복수형태소의 기능은 복수성과 배분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가산명사인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가 ‘-들’을 수반하였을 때는 복수개체를 지시하지만, 다른 명사들은 주로 불가산명사로 인식되어 이들 명사에 나타나는 ‘-들’은 배분적 의미를 위해 쓰이고 있다. 이러한 가산명사와 ‘-들’의 의미적 기능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단수표현이 복수의 대상을 지시하는 불일치

- 4) 사람보다 생명성의 정도가 높은 화자, 청자, 3인칭은 인칭대명사로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가산명사인 사람을 지시하는 표현과 달리 인칭대명사는 중의성이 없이 단수/복수 형태가 엄격히 구분되어 쓰이는데 이는 생명성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 5) 배분사로서의 ‘-들’의 사용은 명사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 (i) a. 많이들 먹어요.
b. 편히 쉬어요들.

(ia)에서처럼 ‘-들’을 포함한 부사 ‘많이들’이 쓰이기 위해서는 복수의 지시대상이 맥락에 존재하고 이 복수개체 각각에 대해 ‘많이 먹어요’를 배분적으로 적용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ib)의 ‘쉬어요들’에 나타나는 ‘-들’도 동사구의 의미를 의미적으로 존재하는 복수의 대상에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문제이다. 즉 가산명사이면서 단수표현인 ‘학생’이 어떻게 복수의 학생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복수개체가 중요한 의미적 주제가 되기 이전의 연구들에서 문장해석의 기반이 되는 해석영역(interpretation domain)은 원자개체와 이들의 집합(set)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형에서 단수표현은 원자개체의 집합을 지시하는 반면 복수표현은 원자개체의 집합의 집합이 되어 단수표현보다 상위의 개체를 지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개체 유형(type)의 차이는 단수표현과 복수표현이 등위접속사에 의해 연결되는 명사구, 예를 들어 ‘the girl and the boys’와 같은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된다. 상이한 유형의 표현이 등위접속사에 의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수/복수표현간의 상이한 유형의 문제와 함께 링크(Link 1983)는 복수표현과 물질명사간의 의미적 유사성이 있음을 주목하고 원자개체를 중심으로 하는 집합의 해석영역 대신에 원자개체의 합(sum)을 기초로 하는 ‘래티스구조(lattice structure)’를 해석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래티스구조에서는 두 개의 원자개체가 합 연산자(join operator)인 ‘+’에 의해 연결되어 새로운 ‘합개체(sum individual)’를 형성한다. 즉 ‘John and Mary’에서와 같이 두 원자개체가 합쳐져서 복수표현이 되는 경우 John의 지시대상 ‘j’와 Mary의 지시대상 ‘m’이 합이 되어 만들어진 합 개체 ‘j+m’을 지시하게 된다. 원자개체와 합개체는 모두 동일한 유형의 개체이므로 등위접속사와 함께 쓰일 때 더 이상 유형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

링크(1984)와 랜드먼(Landman 1989)에서는 원자개체와 합개체로 구성된 래티스구조가 집합명사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에 주목하고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원자개체인 ‘집단개체(group individual)’를 해석영역에 도입하였다.

- (11) a. the group of armchairs/*armchair
- b. one committee of women/*woman

집합명사인 ‘group’이나 ‘committee’는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드시 복수의 구성원을 가져야 하지만 그 자체는 단수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개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집합명사는 John과 Mary와 같은 순수원자(pure

atom) 개체가 아니라 비순수원자(impure atom) 개체인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나아가 집합명사뿐만 아니라 일반명사인 경우에도 집단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집단개체를 지시한다. 예를 들어 ‘the committee members’와 같은 복수표현이 전체 집합인 ‘the committee’와 같은 의미적 기능을 가질 때 집단구성함수(group formation function)인 ‘↑’에 의해 집단을 지시할 수 있다.

- (12) a. [[the committee members]] = {c1, c2, c1+c2}
 b. [[the committee members_g]] = {c1, c2, ↑(c1+c2)}

주어진 해석영역에 c1과 c2의 두 명의 위원이 있는 경우 합개체로서의 ‘the committee members’의 의미는 (12a)에서처럼 원자개체와 합개체의 집합이 되지만 집단개체의 의미는 (12b)에서처럼 일반적인 원자개체와 함께 집단개체로 구성된다.

원자개체와 합개체, 그리고 집단개체로 다원화된 래티스구조에서 한국어의 복수명사구는 중의성이 없이 복수인 합개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해석영역에 a, b, c의 세 명의 학생이 존재하는 경우 영어의 단수표현 ‘student’와 한국어의 단수표현 ‘학생’은 (12a)에서처럼 이 세 개의 원자개체의 집합으로 해석된다.⁶⁾

- (13) a. [[학생_a]] = [[student]] = {a, b, c}
 b. [[학생들]] = [[students]] = {a, b, c, a+b, b+c, a+c, a+b+c}
 c. [[학생_g]] = [[students_g]] = {a, b, c, ↑(a+b), ↑(b+c), ↑(a+c), ↑(a+b+c)}

6) ‘students’나 ‘학생들’과 같은 복수표현의 지시대상에 합개체 뿐만 아니라 원자개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원자개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i)의 부정문에서 양화사 ‘no’의 양화영역은 합개체만 포함하게 되어 이를 부정하게 된다.

(i) No students came.

합개체만을 부정하는 경우 복수의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Some student came’과 같은 함의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생이 전혀 오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student’의 의미에 원자개체도 포함되어야 한다.

복수표현인 ‘students’와 ‘학생들’의 의미는 이들 원자개체를 바탕으로 합개체가 추가된 집합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복수표현인 ‘students’가 집단개체를 지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단수표현인 ‘학생’이 집단개체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단수표현 ‘학생’은 순수원자개체와 복수의 구성원을 가지는 집단개체를 모두 지시할 수 있어서 의미적 중의성이 존재한다. (Kwak 2003, 전영철 2004, Joh 2008)

3. 복수표현의 영한번역 전략

2.1에서 논의된 대로 실제세계에서의 자연적 가산성과 언어세계에서의 문법적 가산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명사의 가산성과 복수성 여부는 자연적 가산성의 측면과 문법적 가산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후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자연적 가산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세계에서 하나인 대상은 단수개체, 그 이상의 대상은 복수개체라고 하며, 문법적 가산성의 측면에서 볼 때 문법적으로 복수화된 표현, 즉 복수형태소를 동반한 형태는 복수표현,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수표현으로 부르기로 한다.

영어와 한국어는 단수/복수표현의 사용양상이 달라 영어의 복수형태소 ‘-s’가 복수표지지만 기능하는 데 반해 한국어의 복수형태소 ‘-들’은 복수표지뿐만 아니라 배분사로서도 기능한다. 한국어에서 명사의 가산성 여부는 지시대상이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만 가산명사이고 그 외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는 불가산명사로 취급된다. 가산명사인 사람명사에 대해서는 지시대상이 복수개체임을 표현하기 위해 ‘-들’이 자유롭게 사용되지만, 사람 이외의 명사는 불가산명사이므로 일반적으로 ‘-들’을 사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복수개체를 지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시대상의 개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배분사로서 기능한다.

위와 같은 특징을 생각할 때 영어 명사의 복수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번역전략 1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인 경우 ‘-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고,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영어에서는 ‘student’와 ‘apple’이 둘 다 가산명사이므로 복수형태소 ‘-s’를 붙여 표현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가산/불가산명사의 기준이 영어와 달라 복수형태소 ‘-들’의 사용 양상도 달라진다.

(14) a. I met students.

b. I bought apples.

(15) a. 나는 학생/학생들을 만났다.

b. 나는 사과를/*사과들을 샀다.

가산명사인 사람명사 ‘students’는 ‘학생’과 ‘학생들’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고 매우 자연스럽다. 단수표현 ‘학생’은 일차적으로 ‘학생 한 명’으로 읽히지만 ‘학생 여러 명’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예컨대 ‘연구실로 학생이 찾아왔다. 다섯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라는 두 문장이 논리의 결함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에서 한국어의 단수표현이 복수의 대상을 지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람이 아닌 대상을 지시하는 ‘apples’는 ‘사과’라는 단수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고 ‘사과들’이라는 복수표현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사람 이외의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는 한국어에서 불가산명사에 속하며, 복수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주로 단수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사람명사에 대해서는 단수표현과 복수표현이 둘 다 무표적(unmarked) 형태인 반면에 사람 이외의 명사에 대해서는 단수표현이 무표적이고 복수표현은 유표적(marked)인 형태이다. 이를 번역에 적용하면,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사람명사는 단수표현과 복수표현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자연스럽고 무표적인 번역인 반면에 사람 이외의 명사는 복수개체에 대해 단수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표적인 번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6)ST: The natives came, by degrees, to be less apprehensive of any danger from me. (Swift 38)

TT: 원주민들은 내가 끼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차츰 버리게 되었다. (이동진 74)

위 예문에서 ‘The natives’는 복수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원주민들’이라는 복수표현으로 번역했다. 사람명사이므로 ‘-들’을 붙인 복수표현이 매우 자연스럽다. 반면에 사람 이외의 명사는 복수개체를 지시함에 있어서 아래 예문과 같이 단수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ST: ①Rabbits come out of the brush to sit on the sand in the evening, and the damp ②flats are covered with the night ③ tracks of ④'coons, and with the spread ⑤pads of ⑥dogs from the ⑦ranches, and with the split-wedge ⑧tracks of deer that come to drink in the dark.

TT: 저녁때가 되면 ①토끼가 덩굴에서 나와 모래사장에 웅크리고 앉는다. 축축한 ②강기슭에는 밤이면 나타나는 ④완옹(浣熊)의 ③ 발자국, ⑦목장에서 온 ⑥개가 뛰어다닌 ⑤발자국, 어둠을 타서 물을 마시러 온 사슴의 굽이 갈라진 ⑧발자국 등이 가득 패여져 있다. (『시사영한대역 생쥐와 인간』 4, 5)

동물을 지시하는 ‘rabbits’, ‘coons’, ‘dogs’와 비생물을 지시하는 ‘flats’, ‘tracks’, ‘pads’, ‘ranches’는 사람명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어에서는 불가산명사로 취급되며, 따라서 위 예문에서처럼 모두 단수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표적이다.

사람명사와 사람이 아닌 명사 간의 가산성 및 단수/복수표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사람명사와 사람 이외의 명사가 섞여 나오는 문장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18)ST: ①The boys and I fanned out, looking for insect munchies. We peeled dead bark from the elm and found slinky red ② millipedes and round gray ③sow bugs. We chased ④

grasshoppers and dug with our hands in a plowed field, uncovering ⑤worms and curled white ⑥grubs with red heads.

TT: ①아이들과 나는 흩어져서 먹이가 될 만한 벌레를 찾았다. 느릅 나무에서 죽은 껍질을 벗겨내자 나긋나긋하게 움직이는 붉은색 ②노래기와 동그스름한 모양의 회색 ③쥐머느리가 보였다. 우리는 ④메뚜기를 잡고 발을 손으로 뒤져서 땅 속에 몸을 감추고 있는 ⑤지렁이와 머리가 붉은 흰색 ⑥굴뻥이를 찾아냈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3집 52, 53)

ST의 ①~⑥의 명사는 모두 복수형태소 ‘-s’를 붙인 복수표현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TT에서는 ①‘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명사에 대해 ‘-들’이 붙지 않은 단수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이들’은 사람명사이므로 복수개체를 지시함에 있어 복수 표현으로 나타내도 무표적이지만, 벌레를 지시하는 나머지 명사들은 한국어에서 불가산명사로 취급되므로 위와 같이 단수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표적이고 자연스럽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는 단수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유평적이더라도 ‘-들’을 붙인 복수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경우 단수표현과 복수표현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

번역전략 2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텍스트 상에서 전체의 의미를 가질 때는 ‘-들’을 붙이지 않고 개체의 의미를 가질 때는 ‘-들’을 붙인다.

사람이 아닌 명사에 ‘-들’을 사용하면 대부분 어색하지만 다음 맥락에서는 ‘사과’뿐만 아니라 ‘사과들’이란 표현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9) 명절 직전이라 가게마다 물건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나도 세 군데나 돌아다니면서 사과를/사과들을 샀다니까.

위 문장은 ‘처음 간 가게에 사과가 충분히 혹은 아예 없어서 가게 두 군데를 더 들른 후에야 사과를 (원하는 만큼) 샀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위 문장에서는

‘사과’와 ‘사과들’이란 표현이 둘 다 가능해 보이며, 특히 ‘사과들’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이 가게에서 조금, 저 가게에서 조금씩 샀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즉, 화자가 산 사과는 A가게에서 산 것, B가게에서 산 것, C가게에서 산 것으로 구분되며, ‘사과들’이란 표현을 통해 각각의 개별성이 강조되어 드러난다. 단수표현인 ‘사과’는 복수개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복수표현 ‘사과들’과 달리 배분적인 의미나 개별적인 의미는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위 문장의 화자가 가게 세 군데를 돌아다녔을 때 A가게, B가게에서는 사과를 구하지 못하고 마지막 C가게에서 사과를 한꺼번에 여러 개 샀다면 ‘사과’라는 표현만 가능하고 ‘사과들’은 불가능하다. ‘사과들’은 배분적, 개별적 의미가 강조되므로 A, B, C 세 가게 중 적어도 두 군데서 사과를 샀을 때만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후자처럼 사과를 여러 가게에서 조금씩 산 경우라면 단수표현과 복수표현이 둘 다 가능하며, ‘사과’라는 단수표현은 사 가지고 온 사과 ‘전체’에 초점을 두고 말한다는 인상을, 또 ‘사과들’이란 복수표현은 사과를 사 온 ‘각각의 출처’에 초점을 두고 말한다는 인상을 준다.

한국어에서는 사람 이외의 명사에 대해서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경우라 해도 단수표현이 무표적, 일반적 형태이고 복수표현은 유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형태이다. 그러나 지시대상인 복수개체를 커다란 하나의 전체로 보지 않고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성, 배분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유표적 형태인 복수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0)ST: Some rabbits scurried through the quarters going east. Some possums slunk by and their route was definite. One or two at a time, then more. By the time the people left the fields the procession was constant. Snakes, rattlesnakes began to cross the quarters. (Hurston 181)

TT: 토끼 몇 마리가 숙소지역을 가로질러 동쪽을 향해 서둘러 갔다. 주머니쥐들도 어디선가 살금살금 기어 나와서는 역시 그 방향으로 잔걸음질을 쳐 갔다. 처음엔 한 번에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씩, 그러다간 더 많은 수가 무리를 지어 몰려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일을 끝내고 돌아올 무렵에는 그것들은 간단없는 행진의 대열을 이루었다. 이제는 뱀들, 방울뱀들이 숙소지역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이시영 155)

위 ST는 한 마리 한 마리 모여 든 토끼며 주머니쥐며 뱀 등이 큰 무리를 지어 행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뱀’은 사람명사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단수 표현을 사용하지만, 위 예문에서는 ‘뱀’이라는 전체 범주가 아니라 지금 행진하고 있는 한 마리 한 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TT에서도 유표적인 복수 표현 ‘뱀들’로 번역함으로써 그 개별성, 배분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람 이외의 명사가 복수개체를 지시할 때 텍스트 상에서 의미의 초점에 따라 단수표현과 복수표현으로 결정되는 예를 하나 더 살펴보자 .

- (21)ST: As they bedded down for the night, shivering and weary, their
 ①dogs suddenly took off into the darkness. Then they heard big
 ②animals crashing through the brush. ③Cattle!

TT: 그들이 지친 몸으로 추위에 떨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①개들이 갑자기 어둠 속으로 달려 나갔다. 이어 커다란 ②짐승들이 관목숲에 부딪치며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③들소였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97집 114, 115)

ST에서는 여러 마리의 개와 여러 마리의 짐승에 대해 각각 ①‘dogs’와 ②‘animals’라는 복수표현을 사용하고, 관목 숲에 부딪치며 달리는 커다란 짐승의 종류와 범주가 ‘소’에 속함을 표현하기 위해 ③‘cattle’이라는 집합명사를 사용했다. 세 명사 모두 사람 이외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이므로 한국어의 경우 단어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일차적으로 단수표현이 사용된다. 그러나 들소사냥꾼들의 사냥 이야기를 다루는 위 글에서는 ①‘dogs’와 ②‘animals’가 텍스트 맥락상 ‘개’나 ‘짐승’의 범주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사냥에 사용되고 사냥의 대상이 되는 개별 개와 개별 짐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단수표현 대신 개체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는 복수표현 ‘개들’, ‘짐승들’로 번역함으로써 그 개별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지시대상이 복수개체임도 분명히 드러냈다. 반면에 ③‘cattle’은 관목숲을 달리는 짐승 한 마리 한 마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짐승들이 속한 범주가 ‘소’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단수표현 ‘들소’를 사용하는 무표적 번역전략을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번역했다.

텍스트 맥락상 개별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 이외의 명사에 대해서도 ‘-들’을 붙여 복수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2) ST: Fairytale turrets can be glimpsed through exotic trees.

TT: 이국적인 나무들 사이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 동화어나 나올법한 작은 탑들. (『모닝캄』 55)

작은 탑들의 모습은 ‘나무들’ 사이로만 볼 수 있으며 ‘나무’ 자체를 관통하거나 투시하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예문에서처럼 ‘나무’라는 단수표현 대신에 ‘나무들’이라는 복수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두 그루 이상의 나무가 존재한다는 개별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 의미전달 및 해석에도 훨씬 유리한 번역전략이다.⁷⁾

사람 이외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에 대해서는 단수개체뿐만 아니라 복수개체를 지시할 때도 단수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무표적 형태이다. ‘-들’을 붙인 복수표현은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기능보다는 복수개체의 개별성, 배분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감당한다. 따라서 개별성 강조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수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단수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단수표현은 지시대상이 단수개체로 해석될 수도 있고 복수개체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만약 지시대상이 단수개체인지 복수개체인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화자나 번역자는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번역전략 3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텍스트 상에서 수량 구분의 의미가 중요하다면 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번역한다.

7) 개별성을 강조해야 하는 지시대상의 개수를 정확히 알 때는 다음과 같이 ‘-들’ 대신 구체적인 수를 밝혀 번역할 수도 있다.

ST: While it was only the creek that separated the boys’ rural Lincolnton homes, an ocean of prejudice and intolerance lay between them.

TT: 소년들이 사는 링컨튼의 두 집 사이에는 작은 개울밖에 없었지만 그곳에는 편견과 편협이 바다처럼 가로놓여 있었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7집 110, 111)

단수개체와 복수개체의 수량 구분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 영어에서는 복수표현만으로도 단수/복수의 여부를 충분히 전달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단수표현으로 복수개체까지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수표현 혹은 복수표현만으로는 수량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어 문장에서 단수개체와 복수개체를 뚜렷이 구분하여 나타내기 위해 별도의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사람 이외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가 복수개체를 지시할 때 이를 문맥이나 상식적 판단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면 단수표현으로만 번역해도 복수개체의 의미가 잘 전달된다.

(23)ST: Jerry would sit on his ①haunches and look directly at my ②eyes.

TT: 제리는 ①엉덩이를 땅에 대고는 내 ②눈을 똑바로 보며 머리를 가우뚱거렸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7집 96, 97)

위 예문은 강아지 제리가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아 주인인 내 눈을 보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는 동작은 일반적으로 양쪽 엉덩이가 모두 땅에 닿기 마련이고, 주인인 ‘나’의 눈도 일반적으로 두 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엉덩이들’, ‘눈들’이라는 부자연스러운 복수표현 대신 위 번역문처럼 단수표현으로 번역함으로써 자연스러우면서도 복수의 의미를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명사의 단수/복수개체 여부가 문맥이나 상식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해당 정보가 맥락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복수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단수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ST: The guard, a middle-aged fellow who displayed a prominent ①a gold tooth on the rare occasions when he smiled, paused. “Where did you get it? he demanded. . . . Each time he brought something. ②A small basket of ③limes to combat scurvy, ④a pair of pants and ⑤a jacket, ⑥bananas, ⑦pickled radishes, ⑧canned beef.

TT: 그 경비병은 중년 남자였는데 가끔 옷을 때면 ①금니가 유난히 돋보였다. “어디서 난거야? 경비병이 다그쳤다. . . . 경비병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찾아와 무엇인가를 주었다. 괴혈병에 좋은 ③라임을 ②작은 광주리에 담아 오기도 하고 ④바지와 ⑤윗도리, ⑥바나나, ⑦절인 무, ⑧쇠고기 통조림도 들고 왔다. (『영한 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8집 116-119)

영어는 수의 범주가 문법적 범주에 속하므로 가산명사에 대해서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 ST에는 경비병의 금니와 또 그가 가져온 물건들의 단수/복수 구분이 관사 ‘a’와 복수형태소 ‘-s’를 통해 뚜렷이 표시되었고, 불가산명사인 ⑧‘canned beef’만 그런 표시 없이 쓰였다. 한국어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영어와 크게 다를 뿐더러 수의 범주가 문법 범주에 속하지도 않고 ‘a’에 해당하는 관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어떤 명사에 대해 단수표현과 복수표현 중 어느 형태를 취할지는 실제 세계에서의 가산성이나 문법적 규범보다는 해당 정보의 경중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즉, 화자의 판단에 지시 대상의 단수/복수개체 구분이 맥락상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다소 유표적일지라도 복수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만약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되면 무표적이고 일반적인 단수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위 예문의 번역자는 경비병의 금니나 그가 가져온 물건들의 단수/복수 여부가 위 글을 이해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모두 단수표현으로 번역했다.

한국어에서 명사의 단수표현이 단수개체와 복수개체 양쪽 모두를 지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만약 어떤 명사의 단수/복수개체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 즉 단수와 복수 중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되도록 하고 싶다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복수형태소 ‘-들’은 사람 이외의 명사에 대해서는 개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개별성 강조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들’이 아닌 다른 별도의 언어적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장치에는 수사, 수량양화사, 부사 등이 포함된다.

지시대상의 단수/복수개체 여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장치는 수사이다. 한국어의 단수표현이 복수개체까지 지시할 수 있으므로 단수개체를 지

시함을 분명히 해야 할 때는 수사 ‘하나’나 이를 활용한 수관형사 ‘한’을 첨가하여 나타낸다.

(25)ST: Once she came upon three Coasties trying to wrestle a log from the surf.

TT: 어느 날 밀리는 세 명의 “코스티 가 파도 속에서 통나무를 하나 끌어올리느라 꺾꺾거리는 것을 보았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4집 82, 83)

위 예문은 해안경비대원들 ‘코스티’가 세 명이나 동원되고도 통나무 하나를 끌어올리는 일이 수월하지 않음을 묘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그만큼 그 통나무가 무겁다는 뜻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티들이 별로 힘이 세지 않다는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다. 이 때 단수표현 ‘통나무’로 번역하면 통나무가 여러 개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원문에서 의도한 의미와 효과가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번역자는 ‘하나’라는 수사를 활용하여 단수개체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수사를 활용해 단수/복수개체를 명확히 밝히는 전략은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손’이나 ‘발’ 등의 신체부위나 이와 관련된 ‘장갑’, ‘양말’ 등의 명사에도 매우 유용하다. 예문 (23)의 ‘엉덩이’와 ‘눈’의 번역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종류의 명사는 별다른 표시 없이 단수표현으로만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두 개 모두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런 명사에 대해 두 개 전체가 아니라 그 중 한 개만 지시하려면 수사 ‘하나’나 수관형사 ‘한’을 따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26)ST: When my daughter, Jan, was 12, our family got devastating news. Jan had a malignant growth that would require a leg amputation.

TT: 딸 잰이 열두 살 때 우리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악성종양 때문에 잰의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7집 44, 45)

‘a leg amputation’을 ‘다리를 절단해야’로 번역하면 양쪽 다리를 모두 절단하는

것으로 오해할 위험이 크므로 위 번역자는 수관형사 ‘한’을 사용하여 ‘한쪽 다리’라고 명시하였다. 두 다리 모두를 가리키는 경우에도 수관형사 ‘두-’를 사용하여 ‘두(쪽) 다리’로 번역하거나 혹은 ‘양’을 사용하여 ‘양(쪽) 다리’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한결 명료해진다.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명사가 아닌 경우에 무표적 단수표현을 사용하면 서도 지시대상이 복수개체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두 번째 방법은 ‘몇’이나 ‘여러’ 등의 수량양화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27)ST: But as gold grew harder to find, violence became epidemic. In 24 days, Clappe wrote, we have had ①murders, fearful ②accidents, bloody ③deaths, ④a mob, ⑤whippings, ⑥a hanging - and ⑦a fatal duel.

TT: 그러나 금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폭력이 전염병처럼 번지게 되었다. 클랩은 이렇게 썼다. 24일 동안에 살인사건 ①몇 건, 끔찍한 사고 ②몇 건, 피비린내나는 죽음 ③몇 건, 소요사태 ④한 건, 태형 ⑤몇 차례, 교수형 ⑥한 건, 그리고 목숨을 앗아간 결투가 ⑦한차례 있었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2집 106, 107)

위 예문에는 단수표현과 복수표현이 여러 개 등장한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여러 폭력 사건을 종류별로, 개수별로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어 사건의 개수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ST의 복수명사에 대해서는 ‘몇 건’ 혹은 ‘몇 차례’로 번역하고, ST의 단수명사에 대해서는 ‘한 건’ 혹은 ‘한차례’라고 번역함으로써 사건들의 단수/복수를 정확히 밝혀주었다.

(28)ST: With her dogs and a three-legged cat she moved into a small home the carpenter had built for her by the wooden bridge.

TT: 밀리는 여러 마리의 개와 다리가 세 개밖에 없는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목수가 나무다리 옆에 지어준 자그마한 집으로 이사했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4집 80, 81)

위 글의 등장인물 밀리는 걸로 보기에 무뚝뚝하지만 속마음은 매우 따뜻하

여 갈 곳 없는 가엾은 동물들을 잘 돌봐주는 인물로, 밀리가 현재 돌보는 동물이 여러 마리라는 사실은 이런 성품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위 번역자는 ‘여러’라는 수량양화사를 별도로 첨가하여 ‘여러 마리의 개’라고 번역함으로써 복수개체를 지시함을 명확히 드러냈다.

지시대상의 단수/복수개체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휘적 장치에는 수사와 수량양화사 외에 부사도 포함된다. 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수사, 수량양화사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한결 더 적극적인 번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나 수량양화사는 ST의 해당 명사의 단수/복수표현 여부만 확인하면 대부분 쉽게 결정되지만, 부사를 첨가하기 위해서는 번역 대상인 해당 명사뿐만 아니라 텍스트 맥락과 상황을 좀더 폭넓게 고려해야만 적합한 표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9) ST: Pau was told that the fire department had been called in to take care of a fire in a parked truck loaded with steel drums.

TT: 파우는 철제 드럼통을 잔뜩 싣고 서 있는 트럭에 불이 나 소방대를 불렀다는 말을 들었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3집 106, 107)

‘drums’는 첫째, 사람 이외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이므로 ‘드럼통’이라는 단수 표현이 무표적 형태이고, 둘째, 위 예문이 각각의 드럼통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아니므로 위 예문의 ‘a parked truck loaded with steel drums’는 ‘철제 드럼통을 싣고 서 있는 트럭’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 텍스트에서 문제의 철제 드럼통은 테러범들이 테러를 목적으로 강력폭탄을 장착해 놓은 것으로써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텍스트 후반에서 드럼통에 실린 폭발물을 제거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위낙에 드럼통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이 제시된다. 따라서 위 ST의 ‘drums’가 복수개체를 지시한다는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위 번역자는 ‘잔뜩’이라는 부사를 첨가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0)ST: Alan was playing in the creek along the back of his parents' property, shoving a stick down interesting-looking holes in the embankment.

TT: 앨런은 부모님 소유의 농장 뒤쪽을 흐르는 개울에서 개울둑에 여기 저기 나 있는 구멍에 흥미를 느껴 막대기로 찔러보며 놀고 있었다.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7집 110, 111)

위 예문은 소년 앨런이 개울둑에 난 ‘holes’를 보면서 막대기로 찔러보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다. ‘구멍’은 사람 이외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이므로 ‘구멍들’이란 복수표현보다 ‘구멍’이라는 단수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위 예문을 ‘개울둑에 나 있는 구멍에 흥미를 느껴’로 번역하면 구멍이 하나뿐이고 바로 그 구멍에 막대기를 찔러보는 장면이 먼저 연상된다. ST에 따르면 이 장면은 개울둑에 구멍이 여러 개가 있고 소년 앨런이 손에 든 막대기로 이 구멍도 찔러보고 저 구멍도 찔러보며 놀고 있는 모습으로, 만약 ‘구멍’이라는 단수표현으로 번역하면 ST와 다른 장면이 전달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위 번역자는 ‘구멍’이라는 단수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번역하되 ‘여기저기’라는 장소부사를 첨가하고 그에 맞춰 ‘나 있는’이라는 표현을 첨가함으로써 복수개체를 지시함을 명시적으로 나타냈다.

영어와 한국어 명사의 단수/복수 사용양상의 차이로 인해 영어 복수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사용된다. 사람명사의 경우에는 ‘-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므로 단수표현과 복수표현이 모두 가능하지만 사람 이외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의 경우에는 개체에 초점을 두어 개별성, 배분성을 강조할 때만 복수표현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단수표현을 사용한다. 만약 수량구분이 맥락상 중요하다면 수사나 수량양화사, 부사 등을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번역자는 영어 원문의 복수표현이 전달하는 정보의 경중과, 맥락 상황, 명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러우면서도 의미가 명료한 번역문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언어의 자의성으로 인해 실제 세계에서의 자연적 가산성과 언어세계에서의 문법적 가산성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문법적 가산성 또한 언어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영어는 대체로 문법적 가산성이 실제 세계에서의 가산성을 반영하는 편이며, 일단 문법적으로 가산/불가산명사로 구분된 후에는 가산명사의 개체 수에 따라 단수/복수표현을 철저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사용한다. 반면에 한국어는 가산/불가산명사의 구분 기준이 실제 세계의 가산성보다는 지시 대상이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들’이 붙은 복수표현이 반드시 복수개체를 지시하기 위해서 쓰인다기보다는 오히려 개체들의 개별성, 배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영어와 한국어 간의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영어의 단수/복수표현, 특히 복수표현을 한국어로 적절히 옮기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명사의 지시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되 사람 외의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는 일반적으로 단수표현을 사용한다. 둘째, 사람 외의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가 복수개체를 지시할 때 그 개체들의 전체에 초점을 맞출 때는 단수표현을 사용하되 각 개체의 개별성, 배분성에 초점을 맞출 때는 배분사로서의 ‘-들’을 붙인 복수표현을 사용한다. 셋째, 사람 외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는 배분적 의미를 강조할 때 외에는 단수개체와 복수개체 양쪽 모두에 대해 단수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단수/복수개체의 수량 구분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수사, 수량양화사, 부사 등을 첨가하여 이러한 의미 차이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단수/복수표현은 표면상 일관성 없고 무질서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와 구분 기준과 사용양상이 다를 뿐, 분명히 가산/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하며 그 기준에 따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본고에 제시된 영한번역전략을 참고하여 단수/복수표현, 수사나 수량양화사, 부사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텍스트에서 해당 수량정보가 차지하는 경중의 정도와 의미 초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영한번역에 한정하여 논했지만 한국어 단수표현이 복수개체도 지시할 수 있음과 배분사로서의 ‘-들’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가 한영번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전영철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 27-44.
- Cheng, Lisa & Rint Sybesma (1999) 'Bare and Not-so-Bare Nouns and the Structure of NP', *Linguistic Inquiry* 30: 509-42.
- Chien, Yu-Chin, Barbara Lust, & Chi-Pang Chiang (2003) 'Chinese Children Comprehension of Count Classifiers and Mass Classifier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2: 91-120.
- Chierchia, Gennaro (1998a) 'Plurality of Mass Nouns and the Notion of Semantic Parameter', In Rothstein, Susan (ed) *Events and Grammar*, Dordrecht: Kluwer.
- _____ (1998b)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and Semantics* 6: 339-405.
- Cohen, Ariel (2001) 'On the Generic Use of Indefinite Singulars,' *Journal of Semantics* 18: 183-209.
- Corbett, Greville (2000) *Number*, Cambridge: Cambridge UP.
- Joh, Yoon-Kyoung (2008) *Plurality and Distributivity*, Ph. D. the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Kwak, Eun-Joo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Nouns Phrase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5: 3-36.
- _____ (2009a) 'Semantic Features of Countability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13: 21-38.
- _____ (2009b) 'An Analysis of Korean Generic Interpretation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4: 221-42.
- Landman, Fred (1989) 'Groups I & II',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559-606 & 723-44.
- Link, Godehard (1983) '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s and Mass Terms: a

Lattice Theoretical Approach’, In Bäuerle, Rainer et al. (ed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Berlin: Walter de Gruyter.

_____ (1984) ‘Hydras on the Logic of Relative Construction with Multiple Heads’, In Landman, Fred et al. (eds) *Varieties of Formal Semantics*, Dordrecht: Foris.

Nemoto, Naoko (2005) ‘On Mass Denotations of Bare Nouns in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43: 383-413.

Park, So-Young (2008) *Functional Categories: The Syntax of DP and DegP*. Ph. D.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othstein, Susan (2010) ‘Counting and the Mass/Count Distinction’, *Journal of Semantics* 27: 343-97.

〈분석텍스트〉

1	ST	Hurston, Zora (2006/1937) <i>Their Eyes Were Watching God</i> , New York: Harper Collins.
	TT	이시영 역 (2001)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	ST	Swift, Jonathan (2003) <i>Gulliver's Travels</i> , London: Penguin Books.
	TT	이동진 역 (2010) 『걸리버 여행기』, 서울: 해누리.
3		『모닝캄』 2007년 4월호. 대한항공 저/역. 서울: 효성출판사.
4		『시사영한대역 생쥐와 인간』, Steinbeck, John 저. YBM편집국 역. 서울: YBM si-sa.
5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2집. 서울: 두산 잡지BU.
6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3집. 서울: 두산 잡지BU.
7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4집. 서울: 두산 잡지BU.
8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7집. 서울: 두산 잡지BU.
9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78집. 서울: 두산 잡지BU.
10		『영한대역 리더스 다이제스트』, 97집. 서울: 두산 잡지BU.

[Abstract]

English-Korean Translational Strategies of Plural Expressions in Texts

Kwak, Eun-Joo · Chin, Silo
(Sejong Univ.)

Much linguistic evidence shows that the notion of natural atomicity, which applies to atoms in the real world,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semantic atomicity, which is for atoms in semantics. This distinction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that semantic plurality may not be used to represent a plural number of objects.

The plural morpheme ‘-s’ in English is mainly used to represent the plurality of objects while the semantic role of ‘-tul’ in Korean is divided between plurality and distributivity. Thus, nouns referring to plural objects may not be accompanied by ‘-tul,’ and nouns with ‘-tul’ may not be related with the plurality of their references in Korean. According to earlier theories on Korean plurality, nouns referring to humans are count nouns whereas the other categories of nouns are more likely to be used as mass nouns. Hence, the occurrence of ‘-tul’ basically represents plurality with human nouns but distributivity with non-human nouns.

Based on the distinct semantics of ‘-tul,’ three translational strategies are suggested for plural nouns. First, plural human nouns in English are translated to nouns with or without ‘-tul’ in Korean. Second, non-human plural nouns in English are translated to nouns with ‘-tul’ only when they implicate strong individuality in texts. Finally, the plurality of non-human nouns in English is instantiated in diverse ways in Korean when plurality itself makes a crucial role in text interpretation.

▶ Key Words: countability, plurality, distributivity, equivalent translation, translational strategy

곽은주

세종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ejkwak@sejong.ac.kr

관심분야: 번역학, 의미론, 화용론

진실로

세종대학교 영문학과 시간강사

sunrise120@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1년 01월 13일

심사완료일: 2011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03월 11일